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96 5/12	A11	24

지상강의

# 동성애자 인권운동, 그 불가능한 현실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 정 우

이반운동가 · 시각디자이너

## 동성애자인권운동의 시작

1995년 6월 26일,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가 발족하였다. 이는 길고 긴 투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였다. 더이상 동성애와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비존재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우리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침묵을 합리화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엔 14개가 넘는 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와 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끼리끼리'(친구사이와 끼리끼리는 초동회라는 이름으로 1993년 12월에 만들어졌으며 친구사이는 94년 2월 7일에, 끼리끼리는 94년 11월 27일에 분리·발족하였다), 그리고 대학동아리인 연세대학교의 컴투게더(ComeTogether), 서울대학교의 마음003, 고려대학교의 사람과 사람, 건국대학교의 화랑 등의 대학이반운동모임들에 더해 주한레즈비언인권모임인 사포(Sapho: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모임

으로 한인들도 많다)가 활동 중이며, PC통신 상에서 자생적으로 별도의 통신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세계 동성애자들의 역사적인 기념일인 6월 27일 스톤월 붕기 26주년을 하루 앞두고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한동협)는 발족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언문과 '우리의 요구 5개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를 한국동성애자인권주간으로 선포하였다. 한동협이 한국의 동성애자인권운동을 대표하여 우리 사회에 대해 촉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인격적 모욕과 비난을 중지하고, 우리가 가진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을 해악시하고 부정하는 모든 의학적, 법률적, 교육적 관행을 중단하라.
2. 언론매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한 그간의 보도관행을 반성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3.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밝힌 동성애자들



# 문예아카데미

## 열린마당

민예총 부설 문예아카데미는  
2000년대 '민족예술대학' 건설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문화예술의 넓고 깊은 배움터입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가을강좌가 마무리되고  
오는 12월 16일 새로이 겨울강좌가  
개설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상강의

동성애자인권운동, 그 불가능한 현실의 가능성에 대하여 / 이정우

■  
한국근현대사의 현장

한국전쟁의 흔적 - 강원도 철원 / 손혁재

■  
겨울강좌

이 강좌를 주목한다 / 박인배 · 박흥주

■  
97 문예아카데미 겨울특강 안내

더이상 동성애와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비존재일 수 없다  
어는 누구도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적소수자들에게 대해  
침묵을 합리화할 수 없다

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침해와 모욕을 중지하라.

4. 에이즈(AIDS)를 동성애자의 역병으로 호도하는 사이비 의학적 선전을 중단하고, 에이즈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사회적 방역체계에서 동성애자를 특별히 관리하고 규제하여온 그간의 시도를 중단하라.

5. 동성애자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이상은 6월 26일 발족식에서 선언문과 함께 선포된 '우리의 요구 5개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의 사안들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각 단체의 활동은 더 간단히 줄이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내적인 활동으로, 동성애자 스스로를 위한 조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을 지닌 사람, 즉 동성애자는 이 땅의 대부분의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고로 각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수인, 스티그마(Stigma: 사회적 수인인 스티그마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자면 호로자식, 혼혈아, 병신 등이 그것으로 그 자체로는 흉이 아님에도 사회에서 배타시하고 폄하하는, 소수자에 대한 낙인찍음이 그 내용이다)를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의 '동성애자 다움'을 어떻게 주변사회와 조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난관들에 대한 공동의 대응 등을 모색하는 곳이기도 하다.

둘째는 대외적인 활동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에 의한 사회·문화·정치적 차별들에 대한 개선 및 개혁 작업이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동성애자공포증(Homophobia)을 파헤치고 우리 사회가 절대적이라 믿고 있는 남근주의 문화에 대해 반문하며 모든 종류의 성차별(성차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에 반대하는 성정치운동으로서의 동성애자인권운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동성애자의 삶의 문제에 대한 개선작업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포함한 공적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은 레즈비언 앤 게이 스터디즈(Lesbian & Gay Studies)강좌를 교양 및 전공 과정으로 개설해 놓고 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가 하나기 우리 사회도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다.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우리 동성애자인권운동가들의 주장을 미국의 예나 들먹이며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로 간단히 평가절하하고자 하며,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소위 전문가라 불리는)의 언술에만 귀기울임으로써 끊임없이 우리 동성애자를 대상화하고자 한다. 잠시 눈점을 비켜가는 일이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낙태의 권리에 있어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여성의 육체에 대한 여성의 주체선언으로서)는 늘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여성낙태의 권리에 대한 판결권은 여성의 것이 지 판사나 의사들(대부분이 남성인)의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인권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 스스로의 목소리이지 심리학자 혹은 정신과 의사들의 고매하신 판결(동성애자에게 우호적이건 아니건 간에)이 아닌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과정에 동성애역사에 대한 부분을 추가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물론 그러한 프로그램보다 우리 사회에





시급한 것은 청소년 상담기관들의 잘못된 상담태도의 개선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상담기관에서는 동성애자 청소년들에게 최악의 상담을 하고 있다. 동성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상담을 하면 "큰일나요.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 정신병이니 병원에 가봐요. 고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혹은 "반드시 고쳐질 테니 걱정말아요. 청소년기에 잠시 일어나는 과도기 현상이니 그냥 잊고 공부나 해요. 시간이 지나서 다 크면 이성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는 일시적인 이탈현상도 아니고 에이즈와도 물론 무관하다. 유관하다면 이성애자인 당신이 에이즈와 유관한 만큼만 유관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들은 피상담자인 청소년들에게 위와 같은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청소년들은 심한 자괴감과 그로 인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 인간의 올바른 성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며 심한 교육적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자살을 시도

하는 청소년의 35%가 자신이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남녀추니 등을 포함하는)라는 사실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자살은 유서에조차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라스트 콜(Last Call) 등의 자살기도 이반들을 위한 상담전화도 따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에이즈연맹 등의 에이즈 관련 기관은 상당한 국고의 보조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 단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에이즈가 아닌 듯하다. 이들의 주요활동은 에이즈 퇴치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안전한 성교육(Safe Sex Education: 에이즈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홍보와 교육, 능동적인 콘돔의 사용권장과 배포 등을 통해 에이즈는 간단히 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질병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를 한다면 치료책의 개발도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나 에이즈 퇴치에 국가가 무관심한 결과, 에이즈는 보균자 집단이라는 막대한 시장을 형성했



고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제약업체들의  
 농간에 시달리고 있다. 제약업체의 입장은 두가지이다.  
 첫째, 일반적인 입장으로 에이즈에 관한 한 현재처럼  
 치료약이 없는 상태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다. 둘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입장에  
 로, 치료약의 개발과 그에 대한 특허권으로 막대한 돈  
 벌이를 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그것이다. 그들은 2천  
 년대에는 에이즈 보균자가 4천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 성과를 공유하지 않으므로써 치료  
 약의 개발을 결과적으로 더디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아니라 고등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벌이는 강연활동  
 이다. 그 강연이란 것이 에이즈 보균자인 한 동성애자  
 를 남파자수간첩 반공연설회 같은 형식으로 강단에 세  
 워 "동성애는 마약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들여 놓으면  
 끊을 수 없고 그러면 에이즈에 걸리게 되니 여러분도  
 저처럼 되기 싫으면 절대 동성애는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벌건 대낮에 에이즈연맹  
 에서 그런 참주선동을 하고 다닌다니 믿겨지지 않을 뿐  
 이다).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대  
 중의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정형화된 오해를 바로  
 잡을 것이며 그와 동시에 실질적인 권익운동으로서 기  
 능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공적지원을  
 요구하는 운동과 결혼 등의 법적 인정을 위한 활동 등  
 을 벌여나갈 것이다. 1996년부터 한국동성애자인권운  
 동은 이반(Queer)운동으로서의 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반운동은 동성애자를 포함하는 성  
 적 소수자 모두의 운동이며 게이와 레즈비언을 단결시  
 키는 이름이다. 우선,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당신의 혼돈  
 스러운 머리를 교통신리하기 위해서 말이다.

### 혼돈스러우십니까?

호모(Homosexual), 게이, 이반, 레즈비언, 트랜스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성을 지닌 동성애자는  
 이 땅의 대부분의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적지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수인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젠더, 트스-섹슈얼, 드랙 퀸, 트랜스-베스티즘, 남  
 녀추니 혹은 어지자지(Hermaphrodite), 앤드로지니,  
 클라인펠터 증후군(Klinefelter Syndrome)…….

당신은 위의 단어들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수인 줄리안 슈  
 나벨(Julian Schnabel)이 말했듯이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 사물들 사이에서 구별을 해야만 하는 위치로  
 떠밀려 왔는지도 모른다. 아니,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지어 존재케 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  
 다. 만약 당신이 동성애자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사람이  
 라면 좀 머리 아픈 일일지도 모르지만 위의 단어들의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 호모(Homosexual)와 게이(Gay) : 동성애자란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 : 절대 성적 취향  
 이 아님!)이 동성에게 이끌리는 사람이다. 성적 지향이  
 란 쉽게 말하자면 마음속 깊이 내재해 있는 성적인 끌  
 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성 역할과는 아무런 상  
 관이 없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오용되고 있는 단어는  
 호모와 게이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호모는 남성동  
 성애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다. 반면 게이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된 이후 동성애자 자긍심의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한, 즉 말 그대로 동성애자로서의 성적정체  
 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자긍심을 찾아 새로운  
 삶을 찾은 것과 같이 기쁘다(be gay)는 뜻의 단어이  
 다. 게이는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이반 : 이반은 우리나라의 종로나 낙원동과 같은  
 소수적이고 자생적인 동성애자 지하문화에서 쓰이기  
 시작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우리나



크리스탈공 남지 올상행사주상 크디상공  
 코지안과 주지안상 10공부인 10공 10  
 점도 10상행공 10상행지상 10상지



라식 명칭이다. 일반과는 다르다는 뜻의 자발적 격리집단으로서의 정의로서 이반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반이란 일반적 일자를 '다를 이'자로 바꾼 말이다. 굳이 번역을 하지 않으면 영어의 퀴어(Queer)에 해당하는 우리말이라 할 수 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Trans-Gender) 등을 포함한 성적 소수자 모두를 포함하는 명칭이다. 즉, 한국성적소수자 자긍심의 새로운 이름인 것이다.

· 퀴어(Queer) : 사전적으로는 '기묘한'이라는 뜻의 이 말은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동시에 이전의 미국의 백인 중산층 중심의 모더니즘에 기초한 이전의 동성애자인권운동에 대한 반성의 흐름으로 나온 새로운 동성애자운동의 흐름을 지칭한다. 퀴어무브먼트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각종 성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80년대 에이즈에 의해 뒷서리를 맞아야 했던 동성애자인권운동에 힘을 불어 넣으며 새로운 주류가 되었던 투사들이 바로 퀴어무브먼트의 액티비스트들이었다.

· 레즈비언(Lesbian) : 레즈비언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역사 속에서 늘 숭앙받아왔던, 레스보스 섬의 사포(Sappho)와 그를 따른 여성들의 사랑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 트랜스-젠더(Trans-Gender),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 우리말로 하면 이성전환증자 혹은 이성전환주의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성전환자가 옳다.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은 같은 말이나 트랜스-섹슈얼은 경멸적인 어감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스카라>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하지만씨 경우가 바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Male to Female Trans-Gender)이다. 하지만 여장을 했다고 다 성전환자는 아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생물학적 성으로는 동성애로 보일지 몰라도 사회화된 인성은 분명 여성(혹은 남성, 남성으로의 트랜스-젠더는 레스비언과의 구별이 쉽지는 않다. 혹은 구별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이므로 여성(혹은 남성)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 드랙 퀸(Drag Queen), 트랜스 베스트리즘(Trans-Vestism) : 요란스러운 여장을 한 남자들을 드랙 퀸이라 부른다. 이들은 대개 트랜스-베스티즘인 경우가 많은데 트랜스-베스티즘이란 이성복장선호자를 말한다. 즉 이성의 복장에 대한 추구가 강한, 쉽게 말해 여장을 즐기는 남자, 혹은 남장을 즐기는 여자이다. 대



사회에서 한 인간을  
 변태나 괴물쯤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불행감을 느끼고 사회적응이 곤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성애는  
 병도 아니며 성격적 혼란도,  
 성장과정에서의 문제로 발생한  
 미완의 발전도 아니다

개 이런 사람들은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이성애자인 경우가 많다.

· 앤드로지니(Androgene) : 앤드로지니란 남녀라는 구분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한다. 크라이 게임에서 트랜스-젠더로 분한 자예(Jaye)같은 경우가 앤드로지니이다.

· 남녀추니 혹은 어지자지(Hermaphrodite) : 우리나라에서 남녀추니 혹은 어지자지라고 불리는 허매프로다이트는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경우를 말한다. 보호자들은 유아기에 한쪽 성으로의 선택을 해버리므로 당연히 여성 혹은 남성으로 사회화된다. 여자로 선택된 남녀추니가 여자를 사랑하면 레즈비언일까 아닐까? ..... 고민하는 것은 물론 바보짓이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모더니즘적 의미로 국한하여 보자면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범주와 명칭은 게이(geyman)와 레즈비언(lesbian)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인 친구사이에는 트랜스-젠더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여성동성애자 모임인 끼리끼리에도 트랜스-젠더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서울대학교 동성애자인권동아리인 마음003과 연세대학교 동성애자인권동아리인 컴투게더, 그리고 고려대학교 동성애자인권동아리인 사람과 사람은 이반-퀴어(queer)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트랜스젠더는 물론 기타의 성적소수집단에 속하는 재학생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동성애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

#### 1. 동성애는 병이다?

정말로 동성애는 그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병인가? 아니면 단지 현 시대 문화적 상황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비난받고 있을 뿐인 다양한 성적 경향 중의 하나인가? 인간의 성생활 영역에서 이 문제보다 더 격렬하게 논란이 되어 온 문제는 거의 없는 듯이 보인다. 한 고전적인 정신의학

자의 견해에 따르면 동성애는 병적이며, 그 원인은 '이성에 대한 공포로 무능해짐', 그리고 '삶의 자기 성미에 안맞음'에 있다. 이 견해는 그 일차적 증거를 정신병치료를 받은 106명의 남자동성애자에 관한 유명한 연구에 두고 있다. 그 동성애자들을 맡아 치료한 치료자들은 그 동성애자들이 비교준거집단인 이성애 취향의 환자에 비해 더 심하게 혼란되어 있었고 보다 불행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적지 않은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 그 오류 중의 하나는 이 연구에서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한 동성애자들의 표집에 관한 것이다. 즉, 정신의학상의 치료를 원했던 사람만이 모집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표집의 대표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동성애자 전체집단에 비해 더 정신적 혼돈 상태에 있을 것은 거의 확실하므로, 한번도 정신과를 찾지 않은 다수의 동성애자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반박을 위해 몇 연구자들은 연령, 교육수준 등이 동일한, 그리고 환자가 아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비교하였다.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간의 개인적 적응상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연구자들은 동성애자가 자기혐오와 자신감 결여 등의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집단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기비하와 방어적 태도는 모든 종류의 박해받는 소수집단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성인 것이다. 사회에서 한 인간을 변태나 괴물쯤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불행감을 느끼고 사회적응이 곤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문제는 동성애 자체



가 성격상의 혼란과 신경증, 혹은 성장과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미성숙의 인성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답은 '아니다'이다. 오늘날 여러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구닥다리 심리학책에 나오듯 동성애를 심리적 장애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신빙성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미 1974년에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동성애를 치료대상항목에서 연구히 제외시켰다. 동성애는 병도 아니며 성격적 혼란도 아니고 성장과정에서의 문제로 발생한 미완의 인성도 아니다.

## 2 동성애의 원인에 관한 논쟁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논쟁(왜 호모가 되었을까? 하는 따위의 의문을 바탕으로 한)은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일찌기 프로이드는 남성동성애자가 긴밀하고 친근한 어머니와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여 어머니를 역할모델로 동일시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이어 일군의 연구자들은 동성애의 원인을 가족관계에서 찾고 있다. 어머니는 자식을 과보호하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끊임없이 적대시하게 하며 아들을 자신의 숨김없는 벗(confident)으로 만들고 아버지는 이에 무관심 혹은 적대감으로 일관한다. 이 모두는 성적인 점잖음을 배경으로 연출된다. 이곳에서 성은 터부시되며 수음을 엄격히 금지하고, 아들이 보이는 이성애적인 관심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지나치게 프로이드적인 모델에 충실하려는 주관적 의도로 그 객관성을 잃고 있다. 병적인 동성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동기의 답변이 다분히 유도심문적일 수 있는 회상적인 것이었다는 등의 오류가 그것이다.

일군에서는 일란성 쌍둥이의 가계에 모계유전으로 동성애자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으며 유전적 근거를 가정하자고 주장한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후속 연구자들은 그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가 많은 가계에서의 모계유전 운운하는 주장은 그 힘을 잃었다. 또다른 연구자들은 남성호르몬 수준에 관심을 가졌다. 남성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

보다 남성호르몬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호르몬의 수준차이는 상대적으로 동성애자로서 사회적 긴장하에 살아가는 데에서 발생하는 결과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호르몬 수준이 낮은 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남성호르몬을 투여한다고 해서 이성애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변화가 있었다면 단지 정력만 좋아졌을 뿐.....).

반면에 성적지향성의 획득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도 있다. 이들은 동성애가 다분히 학습적일 것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이 보통의 경우보다 사춘기에 빨리 도달함으로써 동성애의 경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춘기의 공상을 통한 조건화'는 빠른 사춘기를 맞이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이성애자라는 사실과 학습에 의한 것이라면 왜 성적지향의 전환이 불가능할 것인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에이즈로 사망한 동성애자들의 뇌를 조사한 결과 소녀의 일부가 이성애자들보다 작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세상의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사망과정에서의 질환의 영향으로 소녀에 변화가 온 것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그리고 영똥하게도 연구자가 게이라는 사실 때문에 연구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좀 우스운 사례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는 한 인류학자가 보숨보 원숭이 사회에서의 동성애를 연구·보고함으로써 동성애가 영장류 일반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증명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일군에서는 '게놈 프로젝트(Genome Project)가 완결되는 날 동성애문제는 그 베일을 벗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게놈 프로젝트의 진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게놈 프로젝트의 반인류적 성격을 감안하건데 그런 류의 주장들은 동성애자들을 국가독점자본주의 차원에서 통제·관리하고자 하는 다분히 파시즘적인 의도에 다름아니다. 이기적 유전자(Selfish Gene)같은 책이 날개돋친 듯 팔린 것은 우리 사회의 병적인 파시즘의 변형일 뿐이다. 이러한 류의 이



동성애자공포증은 단지  
동성애자의 인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파시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공포증은 한 사회의  
주류를 이끄는 체계에 편입하지 못한  
소수집단들에 대한  
사회대청소로서의 마녀사냥이다

론은 '중형곡선'같은 반인류적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는 '중형곡선'이론이 각종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결국 저자 중 하나인 헨스타인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해 쫓겨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 3. 파시즘적 질문에 해답이란 없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잡다한 논의들이라기보다 이러한 논의들이 정작 무언가를 끊임없이 으레·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동성애를 이성애적인 담론에 끼워맞춤으로써 체제내화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폭압으로 작용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립항으로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하는 한, 동성애는 도무지 존재 불가능한 불가사의가 되고 만다. 남근주의적 질서의 폐기없이 이분법의 이성애주의자들에게 동성애는 정신병이거나 유전질환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오늘도 부질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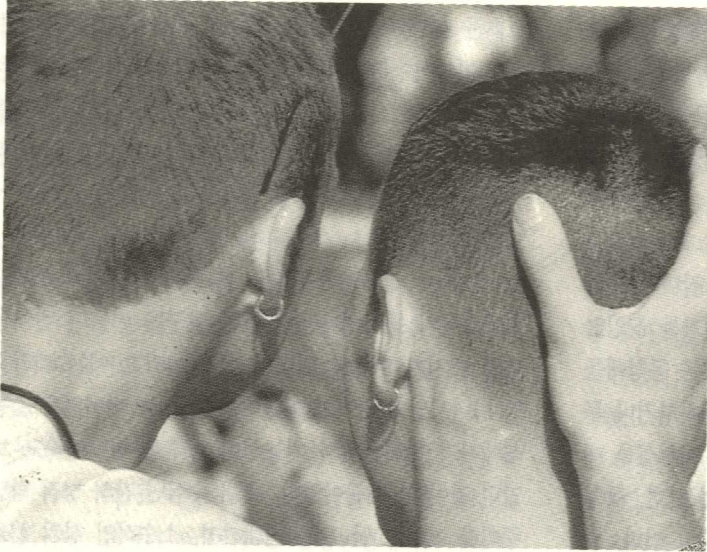
### '동성애자'라는 인식체계의 발명과 그를 통한 마녀사냥

실제의 동성애는 그 기원을 알 길이 없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길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기록상으로는 그리스시대의 동성애문화가 상세히 남아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존재한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18세기 이전에 '동성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동성애자'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기독교문화권에서 소도미(소도미(sodomy)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동물, 이성과의 관계도 포함한다. 흔히 남색이라고 번역하지만 분명히 오역이다. 소도미는 소돔놈들이란 뜻일 뿐이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1861년 영국에서는 그에 대한 사형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때에도 동성애자라는 특별한 성격유형으로서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자본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동성애자(동성애자(Homosexual)라는 용어는 1864년에 발명되었다)는 점차 특별한 종별적 특성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퇴폐집단

연구로서의 동성애자들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반역을 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의혹(그리고 이는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었다. 매카시는 어이없게도 동성애자가 반역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집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때문이었다. 소위 수십년 간의 성적 방임주의를 거치고 난 1980년대까지, 소수적인 성적 선호의 형태들, 특히 동성애는 가족 몰락의 원인으로 비난 받았고, 중산층의 가족주의적 공포를 밀친삼은 우익세력의 재기에 새로운 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에이즈의 출현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새로운 마녀사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에이즈는 동성애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다. 에이즈는 HIV보균자와의 체액교환을 통해 옮을 수 있는 질병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80년대 초반 대처, 레이건과 같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 그들은 전통가치의 수호자로 자처했고 마녀사냥의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유곽을 중심으로 에이즈가 보고되었고 연구지원은 동성애자들의 유곽을 모집단으로 삼는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에이즈라는 죽음의 질병을 퍼뜨리는 악마들로 매도되었고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신의 징벌로까지 선전되었다. '동성애=에이즈'라는 말도 안되는 통념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미국의 경우 초기에 에이즈는 에이즈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동성애자의 암'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에이즈에 대한 정치·사회·종교적 의미부여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짓밟는 동시에 이 질병의 극복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남부유럽의 경우 에이즈는 초기에 흑인 이





동성애자들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화된 모습을 제 머리 속에 가지고 있다. 조금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남성화된 여성, 여성화된 남성, 혹은 유전적인 돌연변이라는 일반적인 추론 외에도 누구나 공통되게 가지는 역겨움, 혹은 경멸은 단순한 낯설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이 시대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표현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동성애자공포증(Homophobia)은 붕어 없는 붕어뱀처럼 동성애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가시적인 존재를 할양받아 본 적이 없음에도 왜 동성애자 공포증은 강력하게 존재하는가? 자, 이제 호모 없는 동성애자공포증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하자.

주민들에게만 보고되었으므로 '검둥이의 암'으로 불리었다. 즉 그 사회의 조건에 따라 자연과학적인 사실로 고찰되어야 할 하나의 질병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 존재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달 에이즈보균자와 환자의 수를 발표하면서 동성애자의 수는 몇 %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실제 동성애자의 수가 과장되어 있음에도 전체 보균자 중 동성애자의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 에이즈공포증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이러한 구별에 따른 부정적 사랑의 지배 이전에 존재의 긍정으로서의 사랑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성끼리의 사랑은 동성애가 아닌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그 범주들의 해체를 통해 억압적인 성규범들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 시도의 톱니바퀴에는 여성해방과 남성해방이라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문제가 삼쌍둥이처럼 맞물려있다.

**이성애자들의 이성애주의에 의한 이성애주의사회에 대한 공포증 -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자공포증)**

동성애자들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화된 모습을 제 머리 속에 가지고 있다. 조금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남성화된 여성, 여성화된 남성, 혹은 유전적인 돌연변이라는 일반적인 추론 외에도 누구나 공통되게 가지는 역겨움, 혹은 경멸은 단순한 낯설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이 시대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표현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동성애자공포증(Homophobia)은 붕어 없는 붕어뱀처럼 동성애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가시적인 존재를 할양받아 본 적이 없음에도 왜 동성애자 공포증은 강력하게 존재하는가? 자, 이제 호모 없는 동성애자공포증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하자.

집단적 심리공황현상인 동성애자공포증은 이 시대의 지독한 신경증의 양태를 이루며 우리의 삶에 부유하고 있다. 동성애자공포증은 단지 동성애자의 인권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동성애자공포증은 우리 사회의 근대적 성과 사랑의 제도가 맞은 위기에 대한 파시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공포증은 언제나 구체계의 수호자들에게 손쉬운 해결책으로 선택되며 그 해결책으로서의 공포증은 한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체계에 편입하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립항으로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하는 한  
동성애는 도무지 존재불가능한  
불가사의가 되고만다  
남근주의적 질서의 폐기없이  
이분법의 이성애주의자들에게는  
정신병이나 유전질환일 수밖에 없다

못한 소수집단들에 다양한 코드의 물리적 폭압을 가능케 하거나 그들에 대한 사회 대청소로서의 마녀사냥을 유행시킨다. 예를 들어 중세의 가장 지독한 공포증인 마녀사냥은 그의 전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경제권을 행사하고 의술을 행하며 남성애의 예속을 거부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마녀'였던 것이다. 유럽의 뿌리 깊은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그 정점으로서의 유대인 대학살(우리는 나치가 당시 독일사회의 대다수 중산층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90년대까지 지속된 남아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 우리나라의 전라도 출신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차별과 배타의식, 그리고 화교와 동남아 노동자들에 대한 지독한 차별정책 등의 사례들 속에서 우리는 이집단공포증이 은폐·왜곡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워왔다.

하지만 근대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로 차별 받았던 동성애자들과 그밖의 성적소수집단에 대한 사실은 흔히 잊혀지곤 한다. 가장 가까운 역사 속의 극명한 호모포비아는 나치에 의한 동성애자 학살에서 찾을 수 있다. 나치들은 동성애자들에게 분홍삼각표(pink triangle)를 붙여 가스실에 처넣었던 것이다. 사실 유럽의 동성애자공포증은 뿌리 깊은 것으로 4세기 초에는 남성동성애 행위에 사형을 구형하였다. 비록 그런 판결이 거의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나중에 카톨릭 교회법과 전 유럽의 많은 시민법의 근거가 되었다. 12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초기 중세시대 때는 많은 정부가 동성애자로 고발된 사람들을 추방시키거나 손발을 잘라내거나 화형에 처했다. 누군가가 동성애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발견되면 마녀나 흑 마술의 주술사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사실, 오늘날의 '패곳(faggot)'이라는 단어는 마녀로 의심받은 여자를 말뚝에 묶어 화형시킬 때 불쏘시게로 쓰일 나무 짐작(bundle=faggot과 동의어)을 묶듯, 남성동성애자들을 붙잡아 하나로 묶는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미국개척

시대와 빅토리아 시기의 영국에서 동성애행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다.

성(sexuality)은 이전 어느 시대에도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이성적 삶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보다 확실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에 대한 '왜?'라는 질문은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되더라도 그에 대한 답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그곳은 그 어느 곳보다 공적인 공간으로부터 격리되어 비밀스럽고 지극히 사적인 세계로 분류된 채 존재하며 종교와 신화적 질서가 그 음험한 공간과 그 공간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보증인으로 존재한다. 각 개인으로서의 현대인은 누구나 그 세계의 암담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 야기되는 야만적인 폭력성을 목도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저항도 물화시켜낼 수 없다.

성이라 불리우는 삶의 한 공간은 모든 사회 불평등과 차별의 거울이며 백화점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한 번도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는 성담론에 대한 진보적인 분석과 그를 통한 공적인 영역으로의 끌어내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며, 성에 대해 붙어 있는 딱지딱지한 신화의 껍질들을 벗겨내어 있는 그대로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에 의해 강제되는 사적인 영역에 묻어두었던 많은 것들을 통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지독한 남근주의적 경쟁체계에 힘겨워하던 남성들과 강요되는 여성성 아래 질식해가던 여성들, 그리고 사회적 배제에 의해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야 했던 동성애자를 비롯한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이 결국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반 운동의 길

우리 이반(Queer)들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를 죽음같은 침묵과 자기경멸로 몰아가는 사회적 낙인찍음을 거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삶의 자긍심으로 바꿔냄으로써 그 시차를 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대의 그릇된 성담론에 대한 전복으로써 이성애가 다른 성적형태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신념이자 이성애만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고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그릇된 이성애주의를 민주적인 문화상대주의의 질서로 바꾸어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남근주의적 질서체계의 해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인권운동은 단지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동성애자인권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

는 보다 일진보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류의 진보를 믿는 그대들에게 단언하는 바, 우리가 맞이할 평등의 땅에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하는 어색하기 이를 데 없는 구분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발족한 대학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의 선언문으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발족 선언문〉

1996년 오늘 우리 동성애자(Gay & Lesbian include Bisexuals), 성전환자(Transgendered)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 대학인들은 이반운동의 이름 아래 새로운 권리와 질서를 향한 활동을 시작한다. 1995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의 원년을 통해 조직된 건국대학교의 화랑, 고려대학교의 사람과 사람, 서울대학교의 마음003, 연세대학교의 컴투게더 4개 단체는 오랜 세월동안 강요되어 온 죽음과 같은 침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긍심의 역사를 일구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는 각 조직의 뜻과 결의를 모아 한국대학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발족시키며 이반운동의 새로운 가치를 높이 세우고자 한다.

이반은 한국 성적소수자 자긍심의 새로운 표현이다. 이반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자기정체성의 첫 언어이다(이반은 일반의 '일'자를 '다'를 이자로 바꾼 것으로, 결국 우리 모두는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다 동등한 이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남녀동성애자를 비롯한 기타의 성적소수자를 이반이라 부를 것을 결의한다. 이반운동은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하는 그릇된 담론의 체계를 거부하며, 이성애만이 옳고 권장되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랑의 형태는 정죄의 대상이라 주장하는 이성애주의의 해소를 추구한다. 이 땅에 우리 이반(동성애자와 동성애 그리고 여러 성적 소수자)들은 분명 사회적 실재로서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적 존재 자체를 인정치 않는 한국 사회의 집단적 침묵을 깨뜨리고자 한다. 그 침묵은 우리 이반들의 삶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었다. 동성애를 비롯



남근주의적 질서체계의  
해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인권운동은 단지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동성애자인권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진일보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여러 소수의 성적 정체성은 일시적 유행이나 서구의 세기말적 문화의 소산이 아니다. 우리의 한반도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은 늘 존재해왔으며, 그것은 언제나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고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동등한 것이었다. 분명코 동성애와 기타의 성적 정체성은 정신병이나 불완전한 인성, 변태적 기질, 혹은 유전적 변이가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기타의 성적 정체성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묻는 여러 노력들을 이성애주의의 사회문화적 폭력으로 규정한다. 동성애를 비롯한 기타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은 결코 대답을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성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이는 동성애공포증이 사실상 이성애주의의 사회가 실제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과 대치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광증임을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유일한 과제는 우리 이반들과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민주적인 질서를 통해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부분으로 내화시켜낼 것인가이다.

또한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관행화된 보도태도를 비판한다. 우리 이반들의 삶을 어둡고 침침한 밀실의 그것으로 보도해온 태도는 우리 이반의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아니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한국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독자적 공동체인 종로와 낙원동 문화를 소돔과 고모라의 재판으로 다루어왔다. 그것은 사회의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만들어 낸 우리 이반 모두의 자력문화에 대한 모욕이며 차별에 다름아니다. 우리 이반은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사수할 것이며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내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반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자매이고, 아들딸이자 학생이며, 선생이고, 운동선수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구이다. 우리 이반은 공전과 평화,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당신 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우리 이반을 새로운 삶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스미디어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이반들은 에이즈운동에 앞장서고자 한다. 우선 에이즈는 동성애와 같은 특수한 성적 정체성과는 무

관한 질병임을 알아야 한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도, 세기말적 재앙도, 신에 의한 도덕적 징벌도 아니다. 그것은 인종과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누구나 체액의 교환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아직 치료방법이 없는 여러 질병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역병으로 호도하는 사회적 태도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일 뿐 아니라 에이즈의 퇴치를 더디게 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며, 무엇보다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의 인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파탄의 근원인 것이다. 우리는 능동적인 에이즈운동을 통해—즉, 에이즈에 붙여진 여러가지 사회 문화 정치적 낙인을 떼어 버리고 새로운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를 모색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에이즈의 진실을 알려냄으로써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반운동은 한국대학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딛으며 여러가지 사회적 장벽에 맞설 것이다. 1996년은 1995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의 원년에 이어 이반운동의 이름아래 새로운 성적 소수자 운동의 장이 열린 한해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안고 당당히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의 사회로 인도할 것임을 확신하며 한국대학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발족을 결의한다.

1996년 3월 한국대학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 1996년 가을강좌 <21C 문화사전> 중 6강